

표선 어촌마을 관광활성화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이진희 · 홍원식*

< 차례 >

- I. 머리말
- II. 어촌관광의 이론적 고찰
- III. 표선어촌지역의 여건분석
- IV. 표선어촌마을의 관광활성화 추진전략
- V. 맺음말

국문요약

명소 만들기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관광활동을 매개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외부자본 또는 기업가 자본에 의해 지역 사회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여건과 환경을 개선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선 지역 어촌마을의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해양자원, 수려한 자연 경관, 고유한 문화유적, 역사적 전통, 유형의 문화재, 독특한 지역특성 등을 활용하여 장소성을 부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4계절 관광객이 방문하는 활성화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제어 : 명소 만들기, 어촌마을, 지역특성, 활성화 추진전략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

I. 머리말

제주지역경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감귤과 관광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국 지역경제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경기침체,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의 과잉생산, WTO체제에 따른 시장개방, 해외여행 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성장률의 둔화를 보이고 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2007년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어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가 본격화되었다.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이 시장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어 시대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제주 농어촌의 기반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농어촌이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농어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어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다.¹⁾

제주도 어업종사자 수의 변화를 보면 1966-2004년 동안 어업종사자의 감소율은 74.4%, 잠수 어업종사자의 감소율은 76.7%로 전국에 비해 약간 더 감소하였다. 제주도 어로어업 종사자는 1970년대 후반에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어업기능의 쇠퇴뿐만 아니라 감귤 재배의 급격한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잠수어업 종사자의 감소 요인은 잠수활동 이탈 요인과 잠수어업을 대체한 생산 활동의 흡인요인이 있다. 잠수활동 이탈 요인으로는 나잡어업에 대한 사회적 경시 풍조와 감귤과 관광 등과 같은 다른 생산 활동의 흡인요인을 들 수 있다. 2000년 이후, 잠수어업 종사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80~90%가 5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잠수어업 종사자들의 노

1) 이진희, 「제주도의 명품·명소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제23권,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2008, pp.171-172.

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오늘날 관광패턴의 변화에 따라 해안에서 휴식을 즐기며, 지역의 문화를 접하고 이를 체험하려는 관광 활동이 확산되면서 갯벌체험, 어촌 문화체험 등 어촌지역에서 관광활동을 즐기려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보고 즐기며, 수산물을 먹기 위하여 어촌을 찾는 관광객 수가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무공해 청정해역, 수려한 해안경관, 온화한 기후 등으로 어촌관광의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하와이, 오키나와 등과 같은 섬 관광지보다 본토에서 근거리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해양경관이 아름답고, 해저생물이 다종다양하며, 해수가 맑아 가시거리가 길고, 조류가 급하지 않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양을 위주로 한 관광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³⁾

제주도 어촌의 관광은 하계에 집중되는 관광행태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 관광은 공간적·시간적으로 집중되는 특성을 띄며, 계절적 집중은 시간 집중과 요일별(주말, 휴일, 휴가) 편중됨으로서 해양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광사업의 수익성에 큰 제약을 끼친다. 또한 해안관광자원과 어촌관광자원은 풍부하나 제주도 전 지역에 분포해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이미지 제고에 한계를 가진다. 기존 관광지 개발의 추진이 미흡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비수기가 없는 4계절형 관광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⁴⁾

2) 이진희, 「관광산업과 연계한 남제주군 어촌의 발전방향」, 『경제개발연구』 제7권 제1호, 제주경제개발연구소, 2005a, p.115.

3) 이진희, 「제주도 해양관광의 현황과 발전전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세미나실, 2007a, pp.97-105.

4) 이진희, 앞의 논문, 2005a, p.1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선지역 어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표선 어촌 마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어촌관광의 이론적 고찰

1. 어촌관광의 개념

어촌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는 어촌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어촌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어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헛집과 민박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1984년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⁵⁾

최근 들어 수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촌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게 되었고, 농촌관광과는 다른 관점에서 어촌관광을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어촌관광에 대한 연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해양관광(Marine Tourism)이나 해안관광(Coast Tourism), 블루 투어리즘(Blue Tourism) 등의 용어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⁶⁾

민상기·김정연(1995)은 어촌관광을 어촌주민 또는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어장·어항·어촌·자연자원과 그 위에서 전개되는 생산 및 생활 활동과 지역의 생산물을 매개로 관광자와 교류 하면서 환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5) 정기환·민상기·이상문, 「어촌지역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p.11.

6) 임영규, 「국내어촌관광 실태에 따른 개발방향의 탐색적 연구」,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10-11.

해양수산부(2001)에서는 어촌관광을 해양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모든 활동'이라는 정의하고 있다.

김성귀·홍장원·박상우(2001)는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어촌관광에 포함여부가 결정되는데, 어촌관광을 해양관광의 하위개념으로 파악하였다. 해양관광과 어촌관광의 차이는 관광활동, 관광이 이루어지는 장소, 관광형태, 관광주체, 투자규모 및 시설, 관광객과의 관계, 관광객 계층 등의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어촌관광을 녹색관광과 같이 어가(漁家)에서 겸업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어촌의 생활, 문화, 자연자원을 포함한 각종 관광자원을 도시와 어촌주민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녹색관광과 대상지역만 다를 뿐, 지역주민의 집을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지역 내에 있는 관광자원을 이용해 지역 활성화를 이루려는 활동이라 하였다.

김영준(2002)은 '도서관광이란 공간적으로 내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해안의 전초기지이자 어업 생산기지인 도서지역에서 도서만이 지닌 고절성(孤節性)을 최대한 이용하여 기존 생활공간 및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도서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풀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친환경적인 도서관광에 대해 어촌에 체재하면서 생활체험을 통해서 마음과 몸에 원기를 회복시켜려는 여가활동을 총칭한 것으로, 해변의 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와 어업체험, 에코 트래킹(Eco Trekking) 등 다양한 체험메뉴를 내방자 스스로 선택하여 체험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해변에서의 생활체험이란 어촌에 체재하면서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 여가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듣고, 보고,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박광범(2005)은 어촌관광이란 연안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

는 공간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사회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친환경적으로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⁷⁾.

2. 어촌관광의 특성

어촌관광은 해역과 연안에 접한 단위지역 어촌사회에서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활동으로, 일상생활을 벗어나 스포츠, 휴양과 오락을 통해 정신적·육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다.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어촌공간에서 어촌자원과 결합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어촌공간과 연관된 활동이다. 연안어촌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생태적 접이지대로서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어촌관광의 특성은 네가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⁸⁾ 첫째, 레크리에이션적 활동으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스포츠 휴양과 오락을 통해 정신적·육체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둘째, 어촌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직·간접적으로 어촌이라는 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된 활동을 말한다. 어촌관광은 어촌자원과 결합되어 일어나는 활동을 말한다. 셋째, 활동의 형태로 어촌이나 해역과 연안에 접한 단위지역 어촌사회에서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활동을 말한다. 넷째, 친환경적인 활동으로 어촌생태계 요소가 다양한 접이지대로서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거나 파괴되기 쉬운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다.

7) 박광범, 「어촌관광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수산경제정책연구원, 2005, p.7.

8) 최병길, 「어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14-15.

〈표-1〉 어촌관광의 특성

활 동	내 용
레크레이션적 활동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스포츠 휴양과 오락을 통해 정신적·육체적 변화를 추구(레크레이션 요소)
어촌공간에 이루어지는 활동	직·간접적으로 어촌이라는 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된 활동(어촌공간에서 어촌자원이 결합하여 일어나는 활동)
활동형태	어촌이나 해역과 연안에 접한 단위지역 어촌사회에서 일어나는 관광목적지의 활동
친환경적인 활동	어촌 생태계 요소가 다양한 점이지대로서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거나 파괴되기 쉬운 생태환경을 가짐

* 자료 : 해양수산개발원(2001), 어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어촌관광의 특성은 어민들이 본업인 수산업을 영위하면서 관광산업에 겹쳐서 종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민의 소득증대와 연계가 가능한 관광으로, 어업 외에 소득증대 차원에서 어촌관광이 중요시된다. 그러나 관광업이 전문이 아니므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영세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잘 이용하여 소규모로 적절히 운영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산업이 될 수 있다. 즉, 낚시나 어패류 채취와 같은 어업과정의 일부를 관광상품화하거나 운영한다던지, 민박을 운영한다던지, 바다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등, 어업과 연계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저소득 어가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⁹⁾

또한 어촌과 같은 작은 커뮤니티는 생산과 주거기능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어촌관광사업은 고용을 증대시키고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 놓은 문

9) 임영규, 앞의 논문, 2004, pp.14-15.

화·관광시설들을 지역주민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과거에는 받기 힘들었던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어촌관광은 특정 지역 및 특정 시간에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주말과 여름철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정 장소 및 특정시간에의 과도한 집중은 도로 체증, 주차공간 확보, 환경정화, 용수공급 등의 측면에서 수용력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어촌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환경의 악화와 생산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¹⁰⁾

3. 어촌관광의 유형

어촌지역의 관광자원은 자원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관광 활동을 수반하게 되는데 관광자원은 크게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자원은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관광대상으로서, 경관미와 위락적 기능을 갖는 자원이며, 인문자원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 지거나 가공된 유, 무형의 관광대상을 의미하며, 사회문화적 자원과 산업자원으로 분류한다. 사회문화적 자원은 한 지역의 생활양식이나 가치관, 문화 등을 반영하는 규범적, 문화적, 예술적 자원을 의미하며, 산업 자원은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시설 중 관광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¹¹⁾

10) 박구원·이수옥, 「해안어촌관광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40호, 2002, pp.167-190.

11) 김천중, 「거제지역의 어가소득증대를 위한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p.12-21.

어촌관광의 유형은 관광자원유형, 관광패턴, 공간유형, 지형적인 형상, 활동유형별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분될 수 있다.¹²⁾

자원유형별로 보면 자연자원이 우수한 지역, 인문자원 중 사회자원이거나 산업자원이 우세한 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관광패턴을 체재유형별로 분류하면 경유형과 체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어촌지역 관광은 여름의 해수욕철에는 휴가를 통한 체재형이 많고, 나머지 계절에는 경유형 관광이 주류를 이룬다. 공간유형별로 보면 근교형, 연안형, 도서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도시 인근은 근교형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의 경우는 대개 연안형으로 볼 수 있다. 도서형은 섬의 경관이 아름답거나 낚시가 잘 되는 곳, 해수욕하기 좋은 곳, 갯벌이 발달한 지역 등이다.

관광활동의 유형에 따라 어촌관광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수산물과 관련하여 수산물의 시식과 수산물을 구입하는 활동이 많다.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공, 판매, 유통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둘째, 어업자원이 연안에 풍부하여 바다낚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다. 갯바위가 발달한 지역이거나 도서 주변에 어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많다.

셋째, 해수욕장지역으로서 백사장이 발달하여 하계에 해수욕객이 몰리는 지역이다.

넷째, 갯벌이 발달한 서해안 어촌, 철새들이 많이 찾아드는 지역, 어장을 이용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어촌 등으로 생태 관련 체험이 가능한 어촌들이다.

다섯째, 해양스포츠가 가능한 어촌 지역이다. 윈드서핑, 잠수, 모터보트 등 유선놀이 등이 가능한 지역이다.

12) 이진희, 『남제주군 해양관광발전 기본계획』, 남제주군, 2006a, pp.114-115.

여섯째, 바다경관을 활용한 어촌관광 유형으로서 일출/일몰은 새로운 어촌관광자원으로 크게 부상하였다.

일곱째, 역사 문화체험형으로서 어촌의 사적, 축제, 문화재 등이 소재하여 어촌관광이 활성화되는 지역이다.

어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관광자원별로 수반되는 관광활동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어촌관광자원의 분류

구 분		내 용
자연자원		해수욕장, 철새도래지, 해안경관지, 해양스포츠 공간, 천연적인 바다 낚시터
인문자원	사회문화적 자원	해양관련 박물관, 과학관, 전시관, 수족관, 지역축제, 체험관광마을, 지역고유의 바다음식, 어구어법, 해양 관련 사적지
	산업자원	어항, 항만, 마리나

*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00

어촌지역의 관광행태로는 해양 스포츠·레저활동, 수산물 구득 활동, 문화활동, 자연경관 감상, 생선회 등 바닷가 음식 맛보기, 휴양·휴식활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 그러나 대부분의 어촌지역에서는 여러 가지의 자원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활동은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13) 농림부,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1996.

Ⅲ. 표선어촌지역의 여건분석

1. 입지여건

표선어촌지역은 남원읍의 동쪽, 성산읍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일주도로인 1132호선(서귀포, 성산포)과 번영로인 97호선(성읍, 표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제주공항에서는 50km거리로 1시간20분 정도 소요되고, 서귀포시에서는 30km 거리로 45분정도가 소요된다.

표선어촌지역의 주변에는 표선해수욕장, 성읍민속마을, 미천굴관광지 등의 관광명소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표선어촌지역과 주변지역에는 표선동굴을 비롯한 용암동굴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요하천으로는 어촌지역 북쪽의 천미천과 서쪽의 가시천이 바다를 향해 유하하지만 평상시에는 건천이다.

2. 자연환경

1) 기후·기상

표선에는 기상대가 없어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태평양 바다를 면하고 있어서 계절풍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편이다. 표선지역 연평균 기온은 15.4℃도이며, 월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과 가장 높은 8월의 평균기온은 각각 5.2℃, 26.2℃로 연교차는 21℃로 나타났다. 연간 강수량은 1,974.6mm로 조사되었고, 연간 총 강수량의 약 55.0%에 해당하는 1,086.0mm가 우기인 6월과 9월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최다 강수량은 8월에 340.6mm로서 제주도 남부지역과 함께 비가 많이 오는 다우지역에 속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태풍의 길목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겨울철 적설은 산간을 제외하면 도내에서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지형·지세

표선어촌지역의 남쪽은 표선해수욕장이 인접하고 있으며, 동쪽은 해안도로를 끼고 복잡한 암초로 이루어진 해안지대이고, 해안지역은 대체로 동쪽 또는 남동 방향으로 경사져 있으며 경사도는 대부분 5%이하이며 민속촌내 중앙부와 관광단지 북서쪽 경계부, 주차장 동측의 구릉지를 제외하면 완만한 평탄지이다.

인근 주변에는 표선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서쪽에는 약 2.5km 지점에 매오름이, 북쪽 약 3km 지점에 달산봉 등의 기생화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천미천이, 서쪽으로 약 4.0km 지점에 가마천이 해안으로 달리고 있지만 관광단지 인근에는 하천이 발달하지 않고 있다.

동쪽과 남쪽 해안지대에는 주로 현무암 용암류로 이루어진 폭 300m 이내의 파식대지가 분포하며, 남쪽에는 표선리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표고는 14m이하의 해안 저지대로서 북서쪽에 위치한 최고표고 13.8m의 구릉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5~10m에 해당하는 저지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해양환경

표선어촌지역의 남측 및 동측의 표선해수욕장과 연근해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여 간조시 해안백사장이 1km이상 나타나며, 해안부 수심도

2m이하의 수심이 연안으로부터 1.5km까지 나타나고 있다.

동측과 동남측 해안은 현무암 지형으로 해안선이 복잡하고 척박한 토양이고, 해안선으로부터 300~400m까지는 5m이내의 얕은 수심을 이루고, 외부로 300m까지 10m이하의 수심을 이룬다. 표선해수욕장 남측 해안선도 현무암의 복잡한 해안선을 이루며 300~1,000m까지 5m이하의 낮은 수심을 이루고, 외부로 300m 가량은 수심 10m이하의 지형을 이룬다.¹⁴⁾

3. 인문·사회 환경

표선리는 표선면사무소 소재지로 해안마을이며 동상·동하·서상·서하·한지동 등 5개의 자연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남쪽으로 바다와 면하여 펼쳐진 백사장은 해수욕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동쪽에서부터 하천리, 세화 1·2·3리가 둘러싸고 있다. 마을의 서북쪽 세화 1리와의 경계에 서있는 매봉은 표선리 전체를 매의 날개로 감싸안은 듯한 형국으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 인구

〈표-3〉 인구 현황

계(명)	남	여	세대수
4,527	2,205	2,322	1,839

14) 남계주군, 『표선민속관광단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01.

○ 가구

〈표-4〉 가구 현황

계(가구)	농 가	어 가	기 타	비 고
1,380	470	124	786	

○ 주요시설

〈표-5〉 주요시설 현황

학 교	은 행	의료시설	공공기관	기 타	비 고
3	1	약국 4, 의원 7	9	금융기관 5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표선읍 마을홈페이지

4. 해양수산 환경

표선면 지역 어업인 현황을 보면 어업가구수는 181가구이며, 어업인 구수는 535명이다. 이중 어촌계원수는 583명이며, 어촌계원 중 184명의 해녀로 잠수작업을 하고 있다.

〈표-6〉 어업인 세력 현황

구 분	어업가구(호)	어업인구(명)	어촌 계원수			잠수수
			계	남	여	
서귀포시	2,571	7,170	5,856	1,532	4,324	2,275
표 선 면	181	535	583	47	536	184

* 자료: 2008년도 서귀포시 해양수산현황

2007년말 어선현황으로는 43척중 1톤미만이 5척, 1~5톤미만이 28척,

5~10톤미만이 7척, 10~20톤미만이 1척, 20~30톤미만이 2척이고, 이 중 대부분의 10톤미만의 영세 어업인으로 생산과 표선을 거점으로 갈치, 옥돔, 복어연승과 멸치 분기초망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표-7〉 어선세력 현황

읍면동별	계	1톤 미만	1~5톤	5~10톤	10~20톤	20~30톤	30~40톤	40톤 이상	비고
서귀포시	1,329	238	609	309	18	146	5	4	-
표선면	43	5	28	7	1	2	-	-	갈치, 옥돔, 복어, 멸치

* 자료 : 2008년도 서귀포시 해양수산현황

43척 어선중 10척은 낚시어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서귀포시 관내 읍·면지역보다는 활발하지 않고 있다.

〈표-8〉 낚시어선 현황

구분	계	대정읍	안덕면	서귀포	남원읍	표선면	생산읍
낚시어선	112	19	23	39	8	10	13

* 자료 : 2008년도 서귀포시 해양수산현황

어업면허 현황을 보면 마을어업은 4건·686ha로서 대부분의 어촌계 원인 해녀들이 소라, 전복, 감태 등을 채취하고 있다.

〈표-9〉 면허어업 현황

구분	계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협동양식어업		어·패류양식어업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표선면	4	686	4	686	-	-	-	-	-	-

* 자료 : 2008년도 서귀포시 해양수산현황

외해가두리양식어업은 무한 잠재력의 외해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해산어류를 양식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낚시터 및 유어장 등의 해양레저와 연계한 해양의 효율적인 활용도 가능하다.

〈표-10〉 외해가두리양식어업 현황

구분	시행기간	위치	어장면적	시설규모	양식물의 종류
시험어업	2005 ~ 2009(4년)	표선면 표선리앞 해상 3km지점	10ha	가두리시설 7대	돌돔, 다랑어류, 참돔, 기타 유영성 어류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마을어업 생산실적을 보면 생산량은 2005년도 대비 13.2%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판매금액은 △8.3% 소폭 감소하였다. 감태 자원이 증가로 패조류 등이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소라, 성게 등의 일본의 엔화 하락으로 인하여 판매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표-11〉 수산물 생산 및 판매현황

(단위: kg, 천원)

연도	합계		패류		해조류		기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5 ¹⁾	175,317	303,116	22,697	175,416	150,000	24,300	2,620	103,400
2006 ²⁾	198,634	277,938	33,933	168,510	161,570	30,925	3,131	78,503

※ 자료: 어촌계 어장관리 실태조사서

- 1) 구) 남제주군
-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06년도 품종별 생산실적을 보면 소라 생산에 따른 해녀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오분자기는 횃집, 일반음식점 이나 어촌계 직영으로 판매하고 있다.

〈표-12〉 품종별 생산실적

(단위: kg, 천원)

구 분	계	성게	문어	해삼	소라	전복	오분자기	갑테
수량	198,634	2,070	560	501	33,313	230	390	161,570
금액	277,938	69,360	3,620	5,523	137,460	18,600	12,450	30,925

* 자료: 2008년도 서귀포시 해양수산현황

1개의 지방어항과 3개의 어촌정주어항이 시설되어 있으며, 이중 지방어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주어항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표-13〉 어항 시설현황

구 분	항수	표선리	하천리	토산리	세화리	관리청
지방어항	1	1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정주어항	3		1	1	1	서귀포시

* 자료: 2008년도 서귀포시 해양수산현황

5. 관광환경

1) 주요 관광자원

① 제주민속촌박물관

1987년에 개촌한 제주민속촌은 157,100㎡규모로 제주도 특유의 생활

풍속이 생생히 살아있는 곳으로 조선말인 1890년대를 기준 연대로 삼아 제주도 전래의 민속자료를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시하고 있다.

제주의 산촌, 어촌, 식물원, 장터, 어구전시장, 야외전시장 무속신앙기구, 관아, 무형문화재의 집을 재현해 놓았다.

특히 100채에 달하는 전통 가옥은 실제 제주도민이 생활하던 집을 둘 하나 기둥 하나에 이르기까지 복원해 놓고 있으며. 전통 가옥에는 생활용구, 농기구, 어구, 가구, 석물 등 약 8천점의 민속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제주의 민속문화인 제주민요, 해녀춤, 탈춤 등 제주민속촌 민속공연단의 정기 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목공예, 죽공예, 띠공예 등 전통 장인들의 빼어난 공예 기능도 재연되고 있다.

무형문화의 집에서는 영상자료와 녹음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의 전설, 방언, 민요 등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를 방영 하고 있으며, 민속촌 내의 장터에서는 빙떡, 몸국, 오메기 술 등 옛맛을 느낄 수 있으며, 편의점, 농수산물점, 토산품점, 컴퓨터 사진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계절별로 봄에는 입춘방 글씨 선물하기, 여름에는 봉숭아 물들이기 및 감물들이기, 가을에는 추석 민속행사와 야생화 사진전시회를 열고, 겨울에는 설날 민속행사, 전통음식 시식, 초가지붕 집줄잇기, 연날리기 체험 및 전시와 연중 민속공연 등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② 표선해수욕장

제주민속촌박물관과는 100m 거리에 있는 표선해수욕장은 썰물시에는 원형의 백사장을 이루고 밀물시에는 수심 1미터 내외의 원형 호수처럼 되어 경관이 아름답다. 1996년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한 환경평가에

서 전국 3위를 기록한 바 있고, 2005년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해변의 총면적이 25만 제곱미터이고, 백사장은 16만 제곱미터이며, 남쪽인 포구 및 갯바위 낚시터가 있어 유어 낚시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매년 7월말에서 8월초에는 해변 레크리에이션과 영화 상영, 백사가요제 등 표선백사대축제가 열리고 있다.

〈표-14〉 표선해수욕장 시설물 현황

면적 (㎡)	백 사 장		시 설 물				
	면적(㎡)	길이(m)	화장실	샤워장	탈의장	식수대	주차장
251,204	160,000	800	2동	1동	1동	2개소	70대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③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소 - 해양수산전시장

해안도로를 따라 2.5km에 이르면 독립배양장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소가 위치해 있다.

'99년 6. 14일에 개소하여 어·패류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방류사업, 수산자원조성, 어구어법개발, 백화어장 복원 연구 등 제주도 해양수산 종합 연구 기능을 수행중에 있다.

연구소에서는 제주도 최초로 48평의 해양수산전시장을 시설하여 도내 학생들의 현장 견학과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전시표본은 182종에 422점으로 주요전시 내용으로는 바다의 탄생기원 영상디오라마, 어패류 생산과정 모식도, 해양생태 디오라마 수족관, 제주도 주요어업 모형, 제주도 해양수산 전반에 관한 소개 패널 등 이다.

외부에 실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의 작업도구를 비치한 전시어

선을 설치하여 직접 어선에 승선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현장감을 주고 있다.

〈표-15〉 연도별 전시장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계	일 반	학 생	어 린 이	외 국 인
계	3,230	1,445	813	821	151
2006	1,085	540	258	239	48
2007	1,099	520	215	343	21
2008	1,046	385	340	239	82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해양수산전시장 운영현황)

④ 표선 해안도로

표선~세화2리 해안을 따라 형성된 6.3km에 걸쳐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해안도로는 포장상태가 양호하고 노선의 굴곡이 없어 주변의 해안절경을 감상하며 달릴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해안도로 진입 전 600m 지점에 횡집거리, 해안도로를 진입 후 1.6km에서는 갯바위에 위치한 동하동 해녀가든, 2.5km되는 지점에는 갯늪이라 불리는 표선리 서하동 해녀의집, 4.1km 지점에 이르면 서상동 해녀의 집, 5.5km지점에 이르면 한지도 해녀의 집, 400m를 더 가면 세화리 해녀의 집이 위치해 있다. 여름철에는 어촌계 직영의 계절음식점에서 제주 해산물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고, 해안도로와 1132번 도로가 접하는 지점에는 제주민속촌박물관이 자리잡고 있으며, 포구와 등대 서쪽으로 용머리코지, 설대섬, 갯늪 등이 해안선을 따라 펼쳐져 있다.

2)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민박시설이 대부분이며 주로 표선해수욕장 주변과 표선 해안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표-16〉 표선면 관광숙박시설 현황

구분	계	콘도	호텔	휴양펜션	민박	여관
개 소	52	2	1	2	37	10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행정현황, 2006

① 해비치 리조트

· 위치 : 제주민속촌 박물관과 표선해수욕장 사이에 해안도로를 진입하는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으며, 바다가 한눈에 보이며, 해안절경과 조화를 이룬다.

· 규모 및 부대시설 : 해비치 리조트내에는 객실 213실과 386석의 로비라운지, 바, 식당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연회장, 야외수영장, 사우나, 비즈니스 센터, 토산품 판매점, 쇼핑샵 등 있다. 리조트 외부시설로는 33만평 부지의 골프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② 사인빌리조트

· 위치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6번지 일대 제주 해양관광지구인 토산관광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단지내 어디서나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고, 한라산과 바다의 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 규모 및 부대시설 : 전체면적은 47,096평으로 총 414실의 객실과 레스토랑 및 바, 야외 바베큐, 오션풀 바 야외 정원 가든이 있으며, 부대 시설은 골프장(18홀), 사우나, 실내수영장, PC방, 슈퍼마켓, 노래방, 로

고샅, 해변 산책로 등이 있다.

3) 주요 먹거리

표선어촌마을 주변에는 옥돔물회와 객주리(취치)물회와 조림이 유명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먹거리가 되고 있으며, 이외 전복, 소라, 성계국수, 해삼, 문어, 한치 등의 횡감을 맛볼 수 있다.

〈표-17〉 표선관광단지 주변 음식점 현황

업소명	소재지	대표메뉴
바람전망대 회센터	표선면 표선리 40-71	활어회 및 전복, 소라 판매
다미진	표선면 표선리 40-51	활어회
다시정 식당	표선면 표선리 1010-5	우족탕
당케식당	표선면 표선리 40-30	취치조림, 옥돔물회
포구식당	표선면 표선리 40-32	취치조림, 옥돔물회
우림가든	표선면 표선리 720	흑돼지갈비
진주횃집	표선면 표선리 45-1	활어회
천혜갈비	표선면 표선리 841-1	냉면, 돼지갈비
한라정식당	표선면 표선리 40-1	옥돔구이, 전복죽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행정현황, 2006

4) 관광객 방문현황

① 표선관광단지의 관광객 현황

표선관광단지내 연도별, 월별 방문객 현황을 보면 해수욕장 이용객과 제주민속촌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3년과 1995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1999년

이후 2006년말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5년과 2005년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260천명에서 2005년 425천명으로 10년 사이에 63%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주5일 근무의 영향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18〉 표선관광단지내 연도별 월별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1987	1991	1993	1995	1999	2004	2005	2006
1월	-	23,573	21,693	20,914	36,940	37,884	28,622	26,303
2월	1,753	13,557	14,302	14,167	22,696	31,767	20,435	22,516
3월	5,530	28,331	17,292	14,167	29,397	25,477	26,191	31,181
4월	10,000	35,480	24,114	22,500	54,780	55,767	54,354	55,673
5월	24,320	38,810	22,906	23,124	60,718	50,114	49,610	60,922
6월	13,948	22,254	18,061	16,934	44,875	29,716	37,325	39,409
7월	11,519	24,633	21,675	23,740	43,382	29,283	32,229	33,519
8월	20,766	43,123	46,500	54,907	69,519	58,676	51,236	48,990
9월	12,423	18,316	11,311	15,137	24,259	28,724	27,491	35,625
10월	22,031	27,080	16,360	18,826	37,386	35,376	45,541	48,492
11월	28,317	27,843	14,683	17,282	30,278	24,753	30,026	35,660
12월	21,989	24,114	12,803	19,273	30,771	22,043	22,848	27,882
년간(인)	172,146	327,114	241,700	260,971	485,001	429,580	425,908	466,172
일평균(인)	472	899	655	715	1,329	1,177	1,166	1,277

* 자료 : 제주민속촌박물관 참고 자료

2006년 제주민속촌의 내국인 관광객의 방문현황을 보면 방문객수는 466,172명이고, 이중 연령대로 보면 성인이 227천명으로 58%, 청소년 23%, 어린이 14%, 노인 5%로 대부분 방문객이 대인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41천명으로 8.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방문객의 특징을 보면 단체관광, 가족단위, 학생순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학생은 거의

수화여행객들이다. 성수기는 4월, 5월, 7~8월, 10월이며, 비수기는 1~3월, 9월이다.

〈표-19〉 제주민속촌 방문객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계
	대인	청소년	어린이	노인	소계		
계	227,718	109,742	67,512	19,609	424,581	41,591	466,172
1월	14,771	2,265	6,462	871	24,369	1,934	26,303
2월	14,514	2,117	3,084	1,123	20,838	1,678	22,516
3월	14,907	9,852	1,891	2,102	28,752	2,429	31,181
4월	22,113	19,529	7,491	2,804	51,937	3,736	55,673
5월	24,594	23,934	5,247	2,571	56,346	4,576	60,922
6월	22,166	11,446	4,569	1,417	36,598	2,811	39,409
7월	21,479	1,887	6,301	1,334	31,001	2,518	33,519
8월	31,086	3,907	7,951	1,645	44,589	4,401	48,990
9월	14,596	10,475	5,088	1,108	31,267	4,358	35,625
10월	18,763	12,941	9,965	1,715	43,384	5,108	48,492
11월	16,109	8,181	4,713	1,831	30,834	4,826	35,660
12월	15,620	3,208	4,750	1,088	24,666	3,216	27,882

※ 자료 : 제주민속촌박물관 참고 자료(표선해수욕장 이용객수 포함)

② 표선해수욕장의 관광객 현황

〈표-20〉 연도별 표선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이용객(명)	38,930	43,123	35,740	77,000	96,000	150,950	260,320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IV. 표선어촌마을의 관광활성화 추진전략

1. 표선어촌관광의 잠재력 분석

		강 점	약 점
외부환경	내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도로, 오름 등 수려한 경관과 생태환경 및 전통 문화자원 보유 · 어촌의 풍부한 자원과 수산시설이 있어 체험형·교육형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 · 어부 및 해녀들이 직접 잡은 어패류를 횡집에서 직접 맛 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화, 어업소득 감소추세 · 공용 주차시설 부족 · 해안도로 육상양식장으로 인한 미관저해 우려 · 관광객이 체류하기 위한 기반시설 부족 · 표선관광단지 인식도가 매우 낮음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국민 여가 생활 증대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계획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 추진 · 중앙정부의 어촌 및 해양 관광 활성화 정책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려한 자연경관 및 인문 문화자원 관광의 극대화 · 제주민속촌 박물관의 활성화 · 표선지역 수산시설을 이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 수산연구시설을 이용한 수산자원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 어촌의 특산물 먹거리 제공 및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의 공동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의 소득증대 도모 ·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 · 육상양식장 주변환경 정비로 해안경관 조화 · 어촌민속전시관 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 적극적인 홍보정책 개발

1) 강점

해안도로와 오름 등 수려한 지연경관과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 등 전통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어촌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해양수산연구원이 들어서 있어 체험관광 및 교육 학습장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성산일출봉과 중문관광단지 등 주변관광지와의 접근성이 좋다.

2) 약점

2007년말 서귀포시 잠수어업인 현황을 보면, 표선면 어촌마을 해녀는 184명으로 이중 30대는 없고, 40대는 단 3명에 불과하며 50대 이상은 181명인데 이중 70대 이상이 69명에 이른다. 해녀로 가입하는 사람은 없고, 고령화 추세로 해가 갈수록 해녀들은 줄어들고 있으며 어부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젊은 층이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제주민속촌박물관 유료주차장을 제외하면 공용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육상양식장이 난립되어 미관을 저해하며, 아름다운 해안도로의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제주민속촌박물관을 둘러보고 해안도로를 경유하는 관광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은 짧은 편이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적은편이다. 또한 관광객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고, 민박, 식당, 해수욕장 등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 기회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국민의 여가시간 증대로 관광객 층대가 예상되며,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제주민속촌박물관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 단체관광객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어촌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에 지원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 관광상품의 개발

〈표-21〉 관광상품 전략

구 분	관광상품 전략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운영시기	
기존관광 상품	제주민속촌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야간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춘방 글씨쓰기, 봉숭아 물들이기, 연날리기 등 야간 문화공연, 야간 먹거리장터 	연중
	표선 해수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사축제 프로그램 개발 주차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고기 방류행사, 해녀물질 대회, 해안도로 걷기 대회, 요리만들기 	여름
	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생태체험 관광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름탐방 	4월~10월
	해안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름다운 해안경관 조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길조성, 야간조명시설, 벤치조성 해안도로 산책 	연중
	향토음식의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음식 개발 및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음식: 옥돔물회 개발음식: 쥐치(객주리)조림, 성계국수 	연중

구 분	관광상품 전략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운영시기	
새로운 관광상품 전략	어촌민속 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어촌민속, 어업 문화를 발굴·보전·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 해녀의 생활상, 문화 등 전시관, 체험시설관, 영상수족관, 기타부대시설 등 	연중
	수산물 직판장 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구매 및 먹고 싶은 육구 충족 수산물 쇼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구매하기 포장배달 인터넷 주문 배달 	연중
	선상낚시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선 및 가두리시설을 이용한 유어낚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어초어장, 해상가두리 및 외해가두리 시설 주변어장 취치, 고등어, 어랭이, 참돔 등 	연중
	체험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어업 체험 해녀 등 관광안내도우미와 함께하는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망낚시 (보들락, 우럭) 보말잡기 기념촬영 	연중
	해양레저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어장 지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이빙 체험, 수중촬영, 작살을 이용한 어류 채포 행위 등 	연중
기존시설을 이용한 관광상품 전략	주변시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체험 관광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항내 보안등 시설 육상양식장 주변 환경정비 관광 안내판 설치 	연중
	해양수산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자원생태교육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시설의 리모델링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활성화 교육 인력 확보 	연중
홍보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선지역 알리기 홍보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개설 운영 학교나 단체와의 자매결연 관련단체 홈페이지 링크 각종 관광정부 시책사업에 적극적 참여 		
가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가격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철별, 주중 또는 주말, 비수기, 성수기별 		

1) 기존 관광상품을 이용한 전략

① 제주민속촌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은 방문객수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주요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 비하면 방문객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주변관광단지와 관광지 접근이 용이한 이점을 살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입춘방 글씨 선물하기, 봉숭아 물들이기 및 감 물들이기, 추석 민속행사와 야생화 사진전시회, 설날 민속행사, 전통음식 시식, 초가지붕 집줄잇기, 연날리기 체험 및 전시와 연중 민속공연 등 현재 운영중인 계절별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전통문화 학습과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참여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교육기관에 홍보하여 학교에서 운영중인 야외학습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둘째, 야간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제주민속촌 관계자에 의하면 야간행사는 화재 위험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지만 표선관광단지내에 제주민속촌 박물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야간 문화공연과 야간 먹거리 장터를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표선해수욕장

표선해수욕장 이용객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5년도에 77,000명에 비해 24%가 증가한 96,000명이 방문 하였으며, 앞으로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해수욕장 이벤트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주변시설 정비 등이 필요하다.

첫째, 표선백사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다. 백사축제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여름철 해수욕장 축제로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매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축하공

연, 댄스공연 등 볼거리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관광객이 참여할 기회가 적다. 따라서 어린고기 방류행사와 해녀물질대회 신설, 해안도로 걷기 대회, 요리만들기 대회 등 독특하고 신선한 고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야간에는 캠프파이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여름밤의 추억을 만끽 하도록 한다.

둘째, 주차시설을 확충한다. 늘어나는 해수욕장 이용객에 비하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해수욕장 주변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는 등 부족한 주차공간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변 부지확보를 통한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③ 오름, 해안도로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첫째, 오름탐방을 통한 자연·생태체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표선면 주변일대에는 오름이 위치하고 있어 천연 식물과 동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아름다운 오름을 자연·생태 체험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한라산 등반과는 또 다른 제주도의 경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해안도로를 정비하여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조성한다. 표선해안도로는 표선의 해안절경을 감상하는 드라이브코스로서 일품이다. 해안도로 주변에 벤치와 꽃길을 조성하여 일정시간 머물러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진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야간에 조명시설을 하여 산책 코스로 야간 경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④ 향토음식 개발 및 판매

현재의 관광은 즐길거리,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의 음식 맛을 잊을 수 없어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거나, 입소문

을 통해 한번쯤은 들리게 되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향토음식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사례로는 오조리 전복죽, 성산읍 신흥리 바지락죽, 동북리 해녀촌의 회국수가 유명하다. 해안도로의 진입구와 포구로 나가면 횃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속칭 옥돔물횃촌이다. 표선의 원조격인 옥돔물회를 먹거리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고, 표선 음식점과 어촌계 해녀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객주리 조림과 성계국수를 먹거리로 개발한다.

당일코스도 들리는 관광객들에게는 음식 먹거리가 체류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식뿐만 아니라 식당의 위생,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강화 되어야 한다.

2)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전략

① 어촌민속전시관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전통 어촌민속, 어업문화를 발굴·보전·전시하여 어촌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을 보전하고, 주변관광지와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은 표선관광단지를 전통민속 문화단지로 조성하려는 관광단지 개발 추진방향에 부합되며, 장마와 태풍 등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표선지역에 실내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체험·학습의 장소로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전시관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제주도에 서식하는 어류, 패류 전시 및 홍보, 어촌 및 해녀의 생활문화 전시, 선상 및 영상수족관 등 체험시설, 영상 홍보물 상영 등 테마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사진촬영 등 기타 부대시설도 갖춘다.

② 수산물직판장 시설 운영

표선리 어촌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은 해안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동하동, 서하동, 서상동, 한지동 해녀의 집이 있다. 여름철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계절음식점으로 어촌계에서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먹는 즐거움과 수산물 구매 등 수산물 쇼핑을 할 수 있는 수산물직판장을 시설 운영하여 관광객의 구매 및 먹고 싶은 욕구를 충족 시켜준다.

구매방법은 직접구매, 포장 및 인터넷 주문 등 원거리까지 신속하게 배달하도록 하고 운영형태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어촌계에서 총괄 운영하되 수산물을 어획하여 손질·가공 처리, 판매, 시설관리 등을 분담하여 맡게 한다.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노인들이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여 일자리를 제공한다. 수산물 판매는 옥돔, 조기 등의 건어물과 해조류, 전복, 소라, 해삼 등의 해산물이다.

③ 선상 낚시체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싼 제주도에서는 사계절을 통해 어디서나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고, 어자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해역에서나 가능하다. 제주도의 낚시관광은 주5일 근무제 정착과 봄·가을 행락철과 피서철을 맞이하여 낚시어선을 이용한 낚시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어선어업인에게 어업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지역별로 낚시어선의 이용객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다낚시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갖춘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선바다는 인공어초 시설어장과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어류가두리 양식장, 외해가두리 양식시설 주변을 활용하여 낚시터를 조성하면 어업의 소득과 함께 가족

동반 관광객들에게 좋은 낚시체험 관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22〉 연도별 낚시어선 운영현황

(단위 : 척, 명,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운영척수	216	236	240	263	240	241	216
이용객수 (척당평균)	79,427 (368)	86,703 (367)	88,460 (369)	91,607 (348)	84,145 (350)	70,506 (293)	110,563 (512)
총수입 (척당평균)	720,427 (3,336)	1,832,174 (7,763)	1,894,004 (7,892)	2,229,080 (8,475)	1,598,098 (6,659)	1,214,640 (5,040)	2,177,000 (10,079)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인공어초는 어류나 패류 등을 끌어 모아 보호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바다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수산생물의 바다속 아파트라 불리고 있다. 인공어초가 시설된 어장은 어류의 서식장과 휴식장 또는 도피장소로 이용되고, 어초에 부착생물이 군집되어 어류가 먹이를 찾아 모이기도 하며, 어류가 산란하기 위하여 모여들기도 한다. 인공어초는 수산동물의 산란·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연안어장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증강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표-23〉 표선지역 인공어초시설 현황

(단위 : ha, 개)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어초종류	사각어초	사각어초	세라믹어초	사각어초	사각어초	강제어초 육각형어초	강제어초
면적	64	64	24	100	208	336	32
수량	400	400	58	625	1,300	189	2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④ 체험어장 개발

표선 해안도로 4개동 해녀촌 앞 바닷가는 어촌계에서 면허받은 마을 어장으로 해녀들이 수산물을 채취하는 곳으로 일부를 개방하여 체험어장으로 활용한다. 체험어장에서는 고망뉘시와 보말잡기를 통하여 잡은 것은 즉석에서 소금구이를 하여 시식 체험토록 한다. 체험어장은 어촌계에서 관리하되 해녀 및 어업인을 관광 안내도우미로 지정하여 뉘시대 제공, 물고기 잡는 방법, 보말잡기, 생태습성 등을 알려주고 안내하며, 해녀와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추억거리를 제공한다.

검은 현무암 바위가 해안가에 돌발처럼 흩어져 있고 돌 사이사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다. 이러한 곳에는 제주도 전통어업인 고망뉘시를 즐길 수 있는데 고망은 원래 구멍의 제주도 사투리로서 남너노소 누구나 손쉽게 우럭, 보들락, 줄락을 낚을 수 있다. 우럭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위틈사이에 뉘시대를 드리우면 잡을 수 있고, 보들락 및 줄락은 뉘시대를 바위틈사이에 여러개 꽂아두어 반복하여 확인하여 빼내면 장어와 비슷한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잡은 물고기는 즉석에서 맛볼 수 있어 좋은 체험거리가 된다. 뉘시에 관심이 없거나, 뉘시대를 꼽아둔 채 바위를 일으켜 세우거나 뒤집으면 보말이나 고동을 잡을 수 있다. 잡은 고동은 돌로 으깨어 고망뉘시 미끼로도 사용된다.

⑤ 해양레저 체험

어촌계 마을어장 중 일부 어장을 개방하여 유어장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다이빙 교육, 다이빙체험, 수중촬영 등을 체험하고, 수산업법상 금지된 작살을 이용한 어류 채포(단 1인1일 2마리)행위도 즐길 수 있다.

3) 기존시설을 이용한 관광상품 전략

① 어항내 보안등 시설

표선항은 해수욕장에 가까운 인근주변에 위치해 있고, 횃집과 민박, 해비치리조트가 근접해 있을 뿐 만 아니라, 표선항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과 주변경치가 아름답다. 또한 50여척이 어선들이 출항하여 만선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표선항은 야간보안등 시설이 부족하여 어업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야간이나 새벽에 출어준비를 하는 어선들과 어업인들이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여 어선출입항, 어구접안과 어구수리, 수산물판매 등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어항 주변에 야간 보안등을 시설하여 어업인의 조업활동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주간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어촌체험 관광을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육상양식장 주변 환경정비

해안도로 주변에는 육상양식장들이 위치하고 있다. 양식장 주변의 환경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오염,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높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철저히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

외관이 퇴색한 고가수조나 외관 벽체, 주변울타리 등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양식차광막, 파이프 자재 등 양식시설물은 정리·정돈하여 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한다.

③ 진입로 안내판 설치

서귀포와 성산포에서 표선 방면, 동부산업도로에서 성읍리로 진입하는 곳에 관광객들이 표선어촌마을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표선관광단지 입구와 해수욕장, 해안도로, 항포구 진입로 등에는 제주도의 특징적인 관광안내 형상물(해녀, 돌하르방, 감귤 등)과 입간판을 설치함으로써 기념촬영 등 관광지 분위기를 조성한다.

3. 가격전략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려 할 때 가격은 시장에서 제품의 교환가치로 볼 수 있으며, 특정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에 부여된 가치이다.

관광시설의 입장권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도로 운영한다. 사계절 중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의 주말, 구정연휴, 추석연휴 등의 시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비수기의 주말에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성수기의 주중에는 보통 가격을 책정하고, 비수기의 주중에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한다. 관광시설의 이용객 층(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과 이용그룹별(가족, 연인, 친구, 단체) 가격을 차별화한다.

적색기간과 백색기간, 청색기간, 노란색 기간 등 시기별로 가격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각종 시설별로 요금의 차별화를 실시하고, 각종 시설을 많이 이용할수록 할인판매하며, 청색기간과 황색기간에는 다양한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표-24〉 시기별 가격할인정도

구 분	적색기간	백색기간	황색기간	청색기간
기간	성수기 공휴일이 연속된 금·토·일 혹은 토·일·월	성수기를 뺀 금·토·일 혹은 공휴일	성수기 평일	비수기 평일
할인 정도	×	△	○	●

주) 가격 할인정도 (강 : ●, 중 : ○, 약 : △, 없음 : ×)
 ※ 자료: 이진희, 장소마케팅전략을 통한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방안 연구, 관광학연구 제25권 제2호, 2001.10, pp. 217-236

표선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만요인의 하나가 바가지요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입장료에 도민은 할인이 되는 것에 관광객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다양한 가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민박, 수산물직매장의 특산물, 바다낚시 이용료, 해수욕장 시설 이용료 등을 대상으로 계절별, 주중 또는 주말, 비수과 성수기 별로 차별 가격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횃집에서 바가지요금을 없애도록 표선지역 상인들이 요금을 합리화하여 싸고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촉진전략

촉진(promotion)은 잠재고객에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해 정보를 알리고, 편익을 전달하며, 구매행동에 대한 설득의 수단이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도구이다. 기존관광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여 사계절 체험형 문화공간이란 포지셔닝에 따라 계절별, 주간/일일 단위로 이용객 계층별로 이벤트를 포함한 일일 체류 및 관광 시간을 연장하여 즐

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광고, 홍보, 판촉을 실시한다.¹⁵⁾

현재 표선어촌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제주민속촌 박물관 홈페이지와 서귀포시에서 링크한 지역별 홈페이지가 있다. 이들 홈페이지는 표선어촌지역을 소개하기에는 미흡하고, 체계적인 홍보가 어렵다. 따라서 어촌계나 표선마을회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홈페이지에는 어촌민속전시관, 연구원, 해안도로 등과 같은 주변관광시설을 소개하고 체험어장, 선상 낚시체험, 백사축제 등의 홍보사진을 게재하여 체험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민박시설부터 먹거리 문화까지 고객의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방문하였던 관광객이 지역수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나 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홍보, 도·시 또는 관광협회에서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 및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여행관련 전문지 게재, 정부 차원에서 어촌마을을 소개하는 이달의 어촌, 아름다운 어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전국에 표선어촌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시장개방과 같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 어업인의 상대적 소득감소 등에 따라 어촌관광자원을 활용한 주민의 소득증대에 대한 관심은 점차

15) 이진희, 「장소마케팅전략을 통한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방안 연구」, 『관광학연구』 제 25권 제2호, 2001, pp. 217-236.

높아지고 있다.

표선어촌지역을 찾는 관광객수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성산일출봉, 미천굴, 중문관광단지 등에 비하면 관광객수는 적은 편이다. 제주민속촌 박물관과 표선해수욕장, 해비치리조트와 호텔 등을 제외하고는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부족하여 관광객을 머무르게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표선어촌지역의 관광객은 계절적으로 봄과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는데, 봄에는 수학여행단과 단체관광객, 여름철에는 대학생,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은 편이다.

표선어촌지역은 해안경관이 아름답고, 오름과 어촌자원이 풍부하여 제주전통민속 문화체험과 어촌관광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입지여건, 자원현황, 관광객 추세 등을 분석한 후 바람직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표선 어촌마을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한 추진전략으로는 상품전략, 홍보전략, 가격전략 등을 들 수 있다. 기존 관광상품전략으로는 제주민속촌박물관, 표선해수욕장, 오름, 해안도로, 향토음식의 전문화 등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였고, 새로운 관광상품전략으로는 어촌민속전시관, 수산물직판장 운영, 선상낚시체험, 체험어장, 해양레저 체험, 등의 상품을 개발하였고, 기존시설을 이용한 관광상품전략으로는 주변시설 정비, 해양수산물연구원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표선지역 알리기 홍보방안과 차별화된 가격제 실시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표선어촌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어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주민,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어업인들과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관광기반이 조

성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마을단체와 어촌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프로그램별로 담당제를 두어 체계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둘째, 관광교육 기회와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다 지역주민 개개인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것이며, 민박, 식당, 해녀, 관광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에서 운영하는 교육이나, 관광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일반 어업인들을 상대로 부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매년 어촌관광가이드 및 어업인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활용할 경우 관광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것이다.

셋째,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해양관광 및 어촌관광 정책사업은 민박, 횃집 등 특정시설에만 편중되어 있어 관광효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어촌 및 해양관광시설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이론적 연구나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연구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다른 제주도의 관광어촌과의 비교, 관광객의 행락행태 등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귀 · 홍장원 · 박상우,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 김영준, 「사회친화적 도서관광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천중, 「거제지역의 어가소득증대를 위한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p.12-21.
- 농림부,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농림부, 1996.
- 남제주군, 「표선민속관광단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남제주군, 2001.
- 농림부,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농림부, 1996.
- 민상기 · 김정연, 「어촌지역의 관광사업 실태와 개발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1995.
- 박광범, 「어촌관광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수산경제정책연구원, 2005, p.7.
- 박구원 · 이수옥, 「해안어촌관광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40호, 2002, pp.167-190.
- 이진희, 「장소마케팅전략을 통한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방안 연구」, 「관광학연구」 제25권 제2호, 2001, pp.217-236.
- _____, 「관광산업과 연계한 남제주군 어촌의 발전방향」, 「경제개발연구」 제7권 제1호, 제주경제개발연구소, 2005a, p.115.
- _____, 「1·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1세기 비전 남제주군민대토론회, 남제주군, 2005b, pp.19-66.
- _____, 「서귀포항 활성화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관광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8권, 제4호, 2005c, pp.173-191.
- _____, 「남제주군 해양관광발전 기본계획」, 남제주군, 2006a, pp.114-115.
- _____, 「제2판 장소마케팅」, 대왕사, 2006b, pp.369-379.
- _____, 「제주도 해양관광의 현황과 발전전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세미나실, 2007a, pp.97-105.
- _____, 「관광을 활용한 농촌 주도의 경제 활성화 방향」, 07 농촌관광 전문인력육

- 성 1차 워크숍,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2007b.
- _____, 「장소마케팅을 활용한 제주시 관광활성화 방안」, 제주시 관광정책 자문단
포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2007. 7. 19, 2007c, pp.1-3, pp.20-27.
- _____, 「제주도의 명품·명소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제23권, 제주대
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2008, pp.171-172.
- 임영규, 「국내어촌관광 실태에 따른 개발방향의 탐색적 연구」, 경희대학교 관광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10-15.
- 정기환·민상기·이상문, 「어촌지역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p.11.
- 최병길, 「어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pp.14-15.
- 해양수산부, 「어촌관광 증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Strategics of Tourism Revitalization
in Pyoo Sun Fishing Village

Lee, Jin-Hee* · Hong, Won-Sick**

Pyoo Sun Fishing Village are surrounded by seas, and the fishery harbor was developed along the coastline. Activating the region of the fishing village as the tourist attraction could not only provide the urban citizens with the region capable of satisfying their recreational desires, but contribute to the improved quality of the inhabitants' live and the increased income in the region of the fishery household.

Travel tendency in modern times is now being generally changed from simply enjoying travel to motivating travel with maximizing the pleasure by participate or experiencing.

As 5-day working system is becoming settled, traveler in family units and young travelers are expected to grow. Accordingly, demands on theme tours focusing on experience in fishing village will become greater in siz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necessity of systematic study on experience tourism.

This study suggests the method and strategy on how to revitalizing

*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 Master Course Student,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experience tourism in fishing village. There lies the reason of this study, to provide suggestion to revitalizing strategy and policy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guideline program in fishing village by applying the concept of place marketing. For this, the study will develop for fishing village revitalization by applying soft phase of rural tour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oncept of revitalizing program should be applied to fishing village areas in Jeju Province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visitors.

Key Words

revitalizing, fishing village, rural tourism, Jeju Province

교신: 이진희 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E-mail : jinhei@cheju.ac.kr 전화 : 064-754-3172)

교신: 홍원식 690-704 제주시 임항로 152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E-mail : hws6490@jeju.go.kr 전화 : 011-697-6490)

논문투고일 2009. 11. 19.

심사완료일 2010. 01. 10.

게재확정일 2010. 01. 17.